**연중 제17주일(2018년 7월 29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 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 주십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유일하게 네 복음서가 동시에 전하고 있는 엄청난 기적 사건입니다.

어떻게 다섯 덩어리의 빵조각과 물고기 두마리로 오 천명을 먹일 수가 있었겠습까?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 기적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나눔’입니다. 하느님의 풍성하고 자비로운 사랑과 은총에 대한 나눔이 바로 오늘 복음서의 주요 핵심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를 좀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지요.

먼저, 첫번 째 핵심 포인트. ‘오천’ 이라는 숫자입니다. 복음서는 “장정만도 오천명”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오천’ 이라는 숫자는 매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엄청 많은 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젊은 남자만 오천 명에다가 그 몇배 되는 여성들과 아이들, 또 노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어마 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갈릴래아 호수 건너편이 사건의 무대가 되는데,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만나는 접경지역입니다.

다시말해서, 무지 무지 많은 어마 어마 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남녀 노소,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배고픈 모든 사람을 아주 풍족하게 먹여주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느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한번 베푸시면 아주 풍성하게, 풍족하게, 넉넉하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째째하게 생색내면서 아까워하면서 쬐금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두가 아주 배부르게 먹고도 열 두 광주리나 남았다고 전해집니다.

하느님은 정말 우리가 서로 나누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걱정하고 고민할 이유가 어디있겠습니다. 그러니 가진 것을 좀 나누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면 하느님께서 충분히 또 채워주십니다. 서로 나눌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온 것었습니까? 작은 소년이, 아주 보잘 것없는 작은 소년 하나가 이 빵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복음서는 전합니다. 이 음식이 그 소년에게 얼마나 중요한 음식이었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꼭 필수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꼭꼭 숨겨두고 며칠 째 아껴가며 가지고 다녔던 것일 겁니다. 그 소중한 음식, 아끼고 아끼고 숨겨두었던 그 생명과도 같은 음식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 기꺼이 꺼내 놓습니다. 그 조그만 손으로. 자기 자신도 배가 고플텐데 말입니다. 아무런 욕심없이. 기꺼이. 전부 내어 놓습니다. 함께 나누려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기가 어디 쉽습니까? 나 먹을 것도 부족한데 같이 먹자고 꺼내 놓는 겁니다.

만일, 그 소년이, 아니면 다른 누구 하나가 이 작은 음식을 나눠 먹기를 꺼려하거나 나중에 먹으려고 몰래 숨겨 두었다면, 예수님이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그 마음 안에 이기심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기심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아낌없이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그 나눔 안에서 예수님은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 주십니다. 이 사랑의 나눔과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성체 성사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복음의 기적이야기는 바로 성체 성사의 예시입니다. 복음서에서 전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사중 성찬의 기도 때도 똑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이 대목은 초대 교회 때부터, 2000년이 지나도록 오늘날까지 미사 때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구절입니다.

성체 성사는 사랑의 나눔이고 은총의 나눔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생명의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보여 주셨고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오래 전 옛날 갈릴래아 호수가에서 모여있던 그 많은 배고픈 군중들이 먹고 힘을 내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었던 바로 그 생명의 양식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기적의 힘으로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양식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에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는 양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성체 성사의 양식도 하느님 나라로 가는 인생여정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용기를 주는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빵을 축성하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그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임무를 부여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빵을 배고픈 군중들에게 직접 나누어 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시는 사명입니다. 성체 성사 안에서의 사랑의 나눔과 신비의 체험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나누어주라’고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놀라운 사랑과 행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가진 것을 아까워 하지 말고, 서로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총을 서로 나누십시오. 나눔 안에서 은총이 싹트고, 또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영원한 행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공동체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적입니다.

수많은 군중을 배불리시기로 결심한 예수님 앞에 필립보가 말합니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이백 데나리온 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사랑 안에서는 가능해집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참된 행복과 평화가 가능한 것은 바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월이 무척 빠릅니다. 벌써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올 한해도 절반이 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또 일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면서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째째하게 인색하게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말고, 관대하고 용기있게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갑시다. 그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고, 함께 풍요롭게 잘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고 그분의 뜻입니다.